

# ‘중앙공원 1지구’ 주주권 확인 소송 오늘 새국면

### 광주고법, 케이앤지스틸 측 “롯데건설 인수 참가” 인용 우빈 ‘탈퇴’ 주목...한양과 반격 기회 불구 백지화는 ‘난망’

케이앤지스틸과 우빈산업 간 빚고을 중앙공원개발(이하 빚고을SPC) 주주권 확인 소송 1심까지 ‘보조 참가자’였던 롯데건설이 당사자로 참여하게 돼 재판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최창훈·김진환 고법 판사)는 ‘주주권 확인 등’ 소송의 1심에

서 패소한 피고 우빈산업·빚고을SPC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케이앤지스틸의 ‘인수 참가’ 요청을 지난 3월28일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2일 오후 2시20분 재개되는 항소심 재판부터 롯데건설은 피고로써 케이앤지스틸과 주주권 확인 다툼을 하게 된다.

이로써 사실상 제3자가 된 우빈산업은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으나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빚고을SPC는 광주중앙공원1지구특례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한양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의 출자지분율로 설립됐다.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빚고을SPC는 주도권을 두고 내용을 겪었는데, 우빈산업이 지난 2022년 케이앤지스틸 소유의 빚고을SPC 주식 24%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 가져오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시공사로 롯데건설을 선정했다.

이에 반발한 한양은 ‘독점적 시공권’을 주장, 광주시를 상대로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으나 현재 광주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빚고을SPC도 한양을 상대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한양에게 시공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 사이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이 가져간 주식을 돌려받기 위해 우빈산업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케이앤지스틸이 빚고을SPC 주식 24%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또 다른 피고 빚고을SPC측에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도 케이앤지스틸이 승소하면 우빈산업의 빚고을SPC 주식 49%를 가져가 허브자산운용에게 19.5%를 주고 29.5%를 가지고 있는 롯데건설은 24%를 뺐어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지분 싸움에서 ‘허브자산운용과 롯데건설’에게 뒤쳐졌던 한양은 ‘한양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까지 더해 54%를 확보, 사업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다만, 광주시와 빚고을SPC가 중앙공원 1지구 분양 협상을 마쳤고, 롯데건설도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을 시작해 이를 백지화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광주고법 민사2부는 같은 날 오후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을 재개한다. 해당 재판의 1심 재판부는 “우빈산업은 한양에 손해배상금 400여원을 지급하고 보유하고 있는 빚고을SPC 주식 25%를 양도하라”고 주문했다. /안재영 기자



세계노동절인 1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민주노동당 광주본부 조합원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예리 기자

## 광주지검 “감형 꼼수” 기습 공탁 차단

###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시도도 양형자료 참조” 지적

광주지검이 공탁의 폐해를 지적하며 형을 줄이려는 꼼수를 차단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일방적 공탁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이마저도 양형자료로 참조되면서 광주지검은 피해자의 의사가 재판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령 및

처벌 의사 등을 확인하는 등 ‘기습 공탁’ 차단에 힘쓰고 있다. 일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전 간부 A씨는 지난 2월 1심 선고가 나기 전 기습 공탁을 했다. 이에 광주지검은 피해자의 공탁 수령 거부 의사를 직접 확인해 재판부에 제출하며 엄벌을 요청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도 감형을 위해 추가 공탁을 해 검찰은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렸다. 거부 의사를 재차 확인한 검찰은 A씨의 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고, 피해자는 “공탁 사실을 통지해 준 검찰 덕분에 처벌의사가 재판부에 전달돼 고맙다”며 감사의사를 전했다.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기노성)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는 일방적 공탁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영 기자

##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만들자”

### 민주노동당 세계노동절 광주대회

‘134주년 노동자의 날’을 맞아 민주노동당 광주본부가 “정부가 노동자들을 힘겨운 상황으로 내몰았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는 1일 오전 11시 광주시청 앞에서 2024년 세계노동절 광주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광주지역본부 소속 건설·금속·공공연대 등 16개 노조가 참석했고 참여인원은 주최 추산 2천여명이다. 대회는 맞이공연, 투쟁사업장 발언, 개회, 노동의례, 대회사·축사·연대사, 문예공연, 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종욱 민주노동당 광주본부장은 대회

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등 1천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일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건설노조 탄압 후 건설현장에선 불법 하도급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지난해 숨진 고(故) 양희동 열사의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유지를 받들어 윤 정권을 반드시 퇴진시키자”고 열변했다. /정은정 기자

사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등 1천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일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건설노조 탄압 후 건설현장에선 불법 하도급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지난해 숨진 고(故) 양희동 열사의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유지를 받들어 윤 정권을 반드시 퇴진시키자”고 열변했다. /정은정 기자

## “문화재 등록하러...” 허위 내력서 낸 스님 항소심도 집유

### 6천만원 주고 산 ‘육경합부’...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유지

사찰의 ‘육경합부’를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허위 내력서를 작성, 지자체에 제출한 주지스님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이영 고법판사)는 1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국불교태고종에 등록된 순천 한 절의 주지스님인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사찰에서 보관하던 육경합부를 전람도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허위 내력서를 작성,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육경합부는 불교의 6개 경문을 하나

로 모은 고서로, 제작 장소나 시기에 따라 가치가 천차만별이다. A씨는 2016년 11월 해당 육경합부를 제3자로부터 6천만원에 구입했으나, 오래전부터 보관해 온 스님들로부터 기증받은 것처럼 소장 내력서를 작성해 문화재 등록 신청을 했다. 1심 재판부는 “돈을 주고 매수했음에도 소장 경위를 허위로 기재해 신청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외에도 A씨는 업무상횡령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론 A씨가 사찰의 재산을 관리하는 직

위에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1심에서 양형 요소가 충분히 고려됐고 형량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

### 광주 백화점 직원 횡령 의혹...조사 중

광주 한 백화점에서 직원이 상품권의 적립금을 자신에게 등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자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1일 해당 백화점 등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 의혹을 받는 직원 A씨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상품권을 구입하는 법인 회원에게 줘야 하는 포인트(적립금)를 자신에게 적립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은숙 기자

## GGM 노동자들 민노총 가입 추진...이달 중 절차 완료

광주글로벌모터스 1노조(이하 GG M1노조)가 민주노동당 금속노조에 가입하기로 결정, 관련 절차를 밟는다.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전남 GGM 1노조는 조직 형태 변경 찬반 의사를 묻는 조합원 총

회를 실시했다. 총회 결과 92.3%의 찬성으로 GGM 1노조는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이달 중 GGM 1노조의 가입 관련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은정 기자

GGM 1노조는 전체 근로자 600여명 중 140여명 정도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가입 후 명칭은 광주글로벌모터스 지회로 변경되며, 출생 선언 및 임원 선출을 마치고 다음 달 사측과 단체교섭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GGM 1노조에 앞서 10여명 규모의 2노조는 지난달 22일 금속노조 전환을 결정했다. /정은정 기자

53년 기술력의 집합체  
우라칸 SH-100 출시!  
우라칸 SH-200 출시!

(사)대한파크골프협회 1호 인증업체 썬아이엔디 와 파크골프채 수제작 전문 기업 에스유엔을 보유한 브랜드  
**썬파크골프**

NEW	우라칸 SH-100	우라칸 SH-200	블리스 GOLD	마스터즈 CH-1500	마스터즈 CH-2000
SPECIFICATION	SPECIFICATION	SPECIFICATION	SPECIFICATION	SPECIFICATION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그립	스파이럴 숫자 특허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영무SP sports      문의: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